

# “공무원이 움직여야 도시가 발전한다”

### 우범기 전주시장, 취임 후 첫 간부회의서 적극행정 강조·전문성 갖추고 시민 목소리 경청 등 주문

우범기 전주시장이 취임 후 첫 간부회의에서 “공무원이 움직여야 도시가 발전한다”면서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우범기 시장은 4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15개 실·국장과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포함한 5개 출연기관장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선8기 첫 간부회의에서 “공무원이 최고의 전문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

우 시장은 “제도적·현실적 문제 때문에 쪼그라들던 시민의 의견을 듣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야 한다”면서 고도제한이나 증수제한 등 규제해제 대상 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는 민선8기 핵심사업에 대한 실행계획 마련과 실국별 당면 현안에 대한 보고 사항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지방연구원이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설립이 가능해진 시정연구원에 관한 사항과 민선8기 행정민원실 설치에 대한 검토 보고도 진행됐다.

시는 제반 절차를 거쳐 올 12월 개원을 목표로 시정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민선8기 행정민원실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는 민선 8기 핵심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시는 새로운 시장 방침과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개편안 마



우범기 시장은 4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15개 실·국장과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포함한 5개 출연기관장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선8기 첫 간부회의에서 “공무원이 움직여야 도시가 발전한다”면서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린 시 재개발·재건축 관련 시장직속 TF팀을 꾸려 전주시의 빠른 변화를 견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우 시장은 또 핵심사업의 실행계획을 면밀히 세울 것도 함께 주문했다.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 재원 마련에서부터 법률적 검토, 추진 로드맵 등 세부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 시장은 제12대 전주시의회 개원과 함께 의회 활동이 시작된 만큼 민

선8기 시정의 동반자로서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우 시장은 “전주의 대변역은 빠른 판단과 결정을 통해 우리 이웃인 시민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며 “언제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전주의 보다 큰 꿈을 위한 고민들을 핵심사업 실행계획에 담아 달라”고 당부했다.

인한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급경사지와 산사태 우려지역 등 재해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점검해줄 것도 지시했다. 기상특보 발령 시 현장 확인과 주민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해하고, 노인 등 취약계층의 혹서기 건강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센터 등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꼼꼼히 챙길 것을 주문했다.

우 시장은 제12대 전주시의회 개원과 함께 의회 활동이 시작된 만큼 민



제12대 전주시의회가 4일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을 갖고 새 시대 희망찬 첫걸음을 알렸다.

## 제12대 전주시의회 개원

### 의장 이기동·부의장 이병하 의원 선출

제12대 전주시의회가 4일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을 갖고 새 시대 희망찬 첫걸음을 알렸다.

의회는 이날 의장에 이기동 의원을, 부의장에 이병하 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이기동 신임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새 시대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려하겠다”며 “시민들의 아낌없

는 충고와 질책,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병하 신임 부의장은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의회와 시민들과의 소통에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롭게 출범한 제12대 전주시의회는 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별 위원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6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별 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김윤상 기자

## ‘제22회 전북독립영화제’ 출품작 공모

### 25일까지 장·단편 독립영화... 10월 말 전주시 일원서 개최

대한민국 독립영화인들의 축제인 ‘제22회 전북독립영화제’가 오는 10월 영화의 도시 전주에서 열린다.

(사)전북독립영화협회는 이날 25일까지 ‘제22회 전북독립영화제’에서 상영할 출품작을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공모에는 작품의 길이와 장르에 상관없이 기존에 출품된 적 없는 2021

년 1월 이후 제작 장·단편 독립영화라면 응모할 수 있다.

출품 부문은 국내 경쟁과 온고를 경쟁 두 부문으로 나뉜다. 온고를 경쟁은 전북을 중심으로 제작된 작품이나 전북에서 활동 중인 영화인(연출자)이 제작한 작품이 대상이다.

공모는 전북독립영화협회 누리집(www.jifa.or.kr)에서 출품 신청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두 부문 모두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 출품이 완료된다.

접수된 작품 중 예심을 통과한 작품은 전북독립영화제 본선 경쟁작으로 상영된다. 상영작을 대상으로 △대상(응원진상) △국내경쟁 우수상(다부진상) △온고올경쟁 우수상(야무진상) △배우상 △심사위원 특별 언급상 △KT&G 상상유니브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상상(기술상) 등의

시상도 예정돼 있다.

제22회 전북독립영화제는 오는 10월 말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등 전주시 일원에서 6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영화제 측은 기존에 5일간 개최됐던 예년과 달리 올해 하루 더 행사를 개최하는 만큼 보다 다채롭고 참신한 독립영화를 발굴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작품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한다면 전북독립영화제 누리집(http://www.jifa.or.kr)을 참조하거나 영화제 사무국(063-282-317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물 수질검사 연중 무료 운영

### 수돗물 안심확인제·공동주택 물음용 컨설팅·현장서비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장병호)는 시민들이 수도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돗물 안심확인제’와 ‘공동주택 물음용 컨설팅 및 현장점검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수도물 수질을 확인하고 싶은 시민들이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 또는 물사랑 누리집(lovewater.or.kr)에 검사를 신청하면, 전주시 수질검사실 담당공무원이 신

청 가정을 방문해 수도물 시료를 채수한 뒤 무료로 수질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검사 항목은 △탁도 △pH △철 △동 △잔류염소 △아연 등 수도물 급수과정에서 2차 오염이 우려되는 1차 항목과 △망간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염소이온 등을 더한 총 10개 항목이다.

1차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색도 △경도 △암모니아성질소 등에 대한 2차 수질검사가 추가로 진행된다.

수질검사를 신청한 시민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홈페이지를 통해 수질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물음용 컨설팅 및 현장점검 서비스를 신청하면 수도물 59개 전 항목을 대상으로 한 수질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질검사 성적서’와 ‘깨끗한 수도물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수돗물 안

심확인제 92개소 △공동주택 물음용 컨설팅 및 현장점검 77개소 등 총 169개소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장병호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수질검사 신청 건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수도물 안전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수도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며 “철저한 수질검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도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 전주시, 희망저축·청년내일저축 가입자 모집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저소득 근로청년 등 대상

전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저소득 근로청년 등에게 본인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지원하는 자선형성지원 통장 사업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자선형성지원 통장사업은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기초생계·기초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초의료급여 선정기준액의 60% 이상인 가구가 가입 대상이다.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탈수급할 경우 매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 1440만 원과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차상위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및 지원금 사용도 증빙 시에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월 10만 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에 720만 원과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현재 근로 중인 19~34세 청년 가운데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가구 내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가구의 재산이 중도시 기준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15~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월 근로·사업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계좌는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월 10만 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월 30만 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 1440만 원과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김윤상기자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은 이달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진행된다. 18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은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된다. 이후에는 5부제와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본인인증을 거쳐 온라인(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다.

전주시 관계자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시는 ‘희망저축계좌Ⅰ’은 1일부터 19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1일부터 18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은 이달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진행된다. 18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은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된다. 이후에는 5부제와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본인인증을 거쳐 온라인(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다.

전주시 관계자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 베트남에 농생명·ICT 플랫폼 구축 협약

###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전북대-베트남국립대, 수출기업 지원 등 활용

베트남에 동남아시아 진출을 꿈꾸는 전주지역 농생명·ICT기업을 지원할 수출 전초기지가 들어선다.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원장 오병준, 이하 ‘연구원’)은 전북대학교, 베트남국립대학교와 공동으로 신남방 국가 진출을 위한 ‘글로벌 농생명·ICT 플랫폼 기술사업 및 시범사업’을 통해 협력 체계를 유지해왔다.

현재는 글로벌 성장 잠재력을 지닌 수출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전주 지역 미래농생명 분야 기업에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기업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오병준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은 “이번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을 시작으로 전주시 관내 관련 기업들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스마트 팜 △농생명 소프트웨어 △영농형 태양광 등을 생

산하는 전주시 수출 기업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연구원은 지난해 전주시, 전북대학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베트남국립대학교와 공동으로 신남방 국가 진출을 위한 ‘글로벌 농생명·ICT 플랫폼 기술사업 및 시범사업’을 통해 협력 체계를 유지해왔다.

현재는 글로벌 성장 잠재력을 지닌 수출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전주 지역 미래농생명 분야 기업에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기업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오병준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은 “이번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을 시작으로 전주시 관내 관련 기업들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 전주시, 다가구주택 동·층·호 표기 상세주소 부여

전주시는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를 표기하는 상세주소 부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원룸과 상가 등 다가구주택의 주소지 기재 미흡으로 인한 우편물 분실 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화재사고와 응급환자 발생 등 응급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시는 다가구주택 현장조사를 기본으로 소유자와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의

견수령 등의 과정을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뒤 거주 중에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 정정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만큼 다가구주택 사용승인 협의 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건축설계사무소에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1598개의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김윤상기자